



동네배움터의 학습나루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성인 여성 학습자 ‘되기(Becoming)’의 경험 의미연구

백정숙(중앙대학교)*

이희수(중앙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동네배움터의 학습나루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성인 여성 학습자 ‘되기(Becoming)’의 과정을 밝히려고 시도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되기’는 모방을 통한 동일 선상에서의 위치가 아닌 차이 그 자체를 생성하여 변화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학습나루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인 여성 학습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로서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학습나루터 프로그램에 어떤 계기로 참여했는가? 둘째, 동네배움터에서 어떤 불완전성을 경험하였는가? 셋째, 참여자들은 학습을 통해 어떻게 ‘-되기’를 실천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학습자들은 삭막한 도시에서 소통의 장이 필요해서 학습나루터를 찾았다. 하지만 동네배움터에서 묻고 답하는 수업 방식이 부담스러웠고 개인의 생각을 나누는 데 불완전함을 경험했다. 회기가 늘어날수록 이야기를 주고받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 익숙해지고 학습자들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졌다. 학습의 자발적 참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육체와 균형 잡힌 사고를 가능하도록 도왔다. 이는 차이생성을 도와 다른 삶으로 변화해나가는 ‘-되기’의 경험을 제공했다. 삶의 균형성은 개인의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주었다.

★ 주제어: 평생 학습공간, 학습나루터, 동네배움터, 성인학습자, 학습권, -되기(becoming)

* 제1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heesu@cau.ac.kr)

I. 서론

학습은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교육과정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의도적 활동이다. 학습은 공간, 시간, 인간이란 삼간과 물적 자원, 재정 자원,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 학습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습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이 평생학습도시로 나타났다. 적어도 학습도시 조성 노력을 통하여 학습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생학습도시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총 226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167곳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또한 평생학습도시는 차별과 장벽을 없애고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습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추동력이며 귀중한 삶의 과정이다(이희수, 김영경, 이소연, 박지영, 조윤정, 2013).

개인의 학습은 자연스러운 활동이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평생학습관과 동네배움터 같은 물리적 학습공간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학습이 자연스럽게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학습공간의 조건에 따라 학습의 활성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불완전함으로 인해 학습력을 잃기도 한다(허효인, 김한별, 2015). 학습이 공간의 어떤 조건에서 활성화되고, 반대로 약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학습력을 독려하려는 관심이 일고 있다. 학습공간의 재배치는 평생학습의 실천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하면서 공간에서의 사람들 간의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이병준, 2019).

평생교육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 여성은 평생학습사회와 고등교육과의 결합 논의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안현용, 2013).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교육은 배운 남성과 결혼하려는 면도 없지 않았다 한다. 이혜정(2015)의 연구는 대학이 남성 편향적인 특성이 있고 교육에 대한 기회제공은 여성의 차별과 소외라는 성 불평등 현상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교육의 소외자인 여성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는 삶의 질적 변화와 새로운 관점변화로 자아 자체가 전환되는 ‘전환의 마디’ 즉 변곡점이 있다. 전환의 마디는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갈등의 지점들과 용기 있게 대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며 적극적으로 사유할 때 발생한다고 한다(전희경, 2013). 학습은 성인 여성을 객체적 존재로서 존재적 전환과 전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얼마나 지속가능하느냐이다(정민승, 2014).

근대화를 넘어서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의 배움은 자식의 교육과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될 때 정당화되었으며 대부분 여성은 산업화과정에서 산업일꾼으로 존재했다(김미숙, 2006). 여성은 노동시장의 진입과 퇴장에 있어서 남성보다 더 빨리 ‘너무 나이가 많은’ 것으로 여겨졌다. 유리천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다. 영국 이코노미시트가 2019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 '유리천정지수'에서 한국은 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성의 배움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교육차별은 여성에게 지속성을 제공하지 못했다. 여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일련의 시간이란 사회체제 속에서 '여성'으로 되어 간다(전희경, 2013). 지속성은 '되어 가는 것'을 추동하는 힘이다. Deleuze의 철학 개념인 '-되기(becoming)'는 하나의 정해진 실체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동일성을 가지지 않는다(조애리, 김진옥, 2016).

지금까지 평생학습공간에서 성인 여성 학습자가 지속성을 가지고 시·공간을 인간과 하나로 연결된 연속체로써 '-되기'를 밝히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다. 조애리, 김진옥(2016)의 Deleuze와 Guattari의 여성-되기와 전복성 연구에서 여성은 가부장제 안에 배치된 여성이 아니라 여성-되기를 통해 개별적인 주체인 분자적 여성이 되며 기존의 권력구조에 균열을 일으켜서 국가가 배치하는 여성을 넘어서서 대안적인 집합성으로 여성이 됨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인 여성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학습공간에 참여하면서 여성 '-되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평생학습 거점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연구(강춘근, 2015)에 따르면, 도서관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확대하는 데 유용하였다.

하지만 학습공간에서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을 고려해서 학습공간을 확장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어도 공간은 고정된 앎을 전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태적인 곳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맥락적으로 바라보며 차이를 생성하는 동태적인 곳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곧 되기의 관점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체 형성을 위한 되어감의 존재로서 여성을 지역평생학습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바라보지 않았으며, 지역에 뿌리를 내려가는 여성을 위한 학습으로도 충분히 의식하지 않았다(양병찬, 2014)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 연구는 동네배움터의 학습나루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경험하는 '-되기'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학습공간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통찰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학습나루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평생학습 참여공간에서 어떤 불완전성을 경험하였는가?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평생학습 공간에서 '여성 되기'를 어떻게 실천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학습공동체 형성

사람들은 모여 살기 마련이다. 모이면 학습이 이루어진다. 모여 사는 삶 자체가 학습이

고 학습이 삶이다. 지역학습공동체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이며 일정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며 실천하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Hilery, 1982). 우리에게 있어서도 20세기 들어 한국전쟁, 산업화 등을 경험하고 최근에는 글로벌 사회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의 중요성이 축소되었다(박웅희, 신서영, 박창현, 2019).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러한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무형식의 상황학습을 맺으면서 살아간다(Wenger, 1998).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삶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래 평생학습도시는 지역공동체 강화와 학습운동 실현으로 지역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 이와 함께 서울시는 ‘100세 시대,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선포하면서 주민들의 근거리 에 동네배움터 유희공간 111개의 문을 열었다(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9).

〈표 1〉 2019년 연도별 동네배움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연도	자치구	동네배움터 수	프로그램 수
17년	13개	45개소	143개
18년	15개	53개소	192개
19년	14개	111개소	1,136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9)

도시는 개인의 삶의 공간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학습자가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각자의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구성원 간 집단적 학습경험은 학습공동체의 확장을 돕는다(조병옥, 최운실, 2019). 동네배움터는 도시 전체가 배움의 터전이 되어 시민 모두가 더불어 배우며 삶과 배움의 경계가 없는 학습공동체 형성에 힘쓰고 있다.

배움은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학습은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학습력은 학습자가 처한 학습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매우 가변적이다. 학습력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은 학습자의 경험 자체를 존중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습공동체 공간은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한다(이병준, 2017). 학습공간은 학습자들의 주체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격려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간은 특정한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을 넘어서 꿈의 실현까지 모색할 수 있는 장소이다(허효인, 김한별, 2015).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학습공동체 공간을 만들어간다.

2. 불완전성 공간을 넘어 ‘- 되기(becoming)’ 과정

동네배움터 공간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공간에서 삶과 학습을 잇는 학습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평생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이 삶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이희수, 조순옥, 2007).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서로 배우고 즐기는 것이 가능하며 공동체를 둘러싼 개인과 개인들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김종일, 2006).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이해관계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갈등이 존재한다. 어떤 갈등은 대결이나 경쟁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또 다른 갈등은 화합의 축대로 작용되면서 공간의 새로운 힘을 만드는 상생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갈등이 화합을 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 작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생학습이다. 따라서 일정 공간에서 학습 지속성의 확보는 공동체의 성장과 변화의 핵심이 된다(박응희, 신서영, 박창현, 2019).

학습공동체 공간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 있거나 언제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특정 교수설계자의 기획 의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학습공동체가 공간의 중요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은 존속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습공동체는 고정된 건물과 면적이란 물리적 공간 중심의 사고를 하였고 새로운 학습공동체 사유는 공간의 생산과 유동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주체성과 재생산을 전제로 한다(최근정, 최선주, 2019). 한국교육개발원장 반상진(2020)은 “미래교육을 담는 혁신공간은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며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일정한 공간에서 주민 활동의 공공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다(송두범, 임현정, 정선기, 2016).

어떤 상태로 오래 계속되는 의미인 지속성은 다음으로 나아가는 연속성을 가진다. 아무리 작더라도 정체성을 변화시켜 다음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망이 갖춰지는 것이 일련의 교육과정이다(정민승, 2014). 지속가능발전 목표 4번의 ‘모두를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을 거론하지 않아도 지속가능성은 평생학습의 본령이다(이희수, 2009). 학습은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곽삼근, 2002). 학습과 공간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는 여성의 되기의 과정이자 터전이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한 주체인 성인 여성 ‘-되기’는 남성의 지배 사상이서 벗어나서 여성 입장에서 사고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애리와 김진욱(2016)에 따르면, 여성은 존재(being)에서 ‘-되기(becoming)’의 혁신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하며, 이러한 차이생성을 하려면 여성도 ‘여성 되기’가 필요하다. ‘-되기’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개체는 의욕이 있으며 모든 개체의 존재 양식은 ‘차이생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김재인, 2001, Deleuze & Guattari, 1988).

차이생성과 관련하여 Engestrom을 중심으로 논의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은 실천을 추구하는 학습으로 집단활동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성과 특이성의 차이를 보여준다(윤창국, 박상욱, 2012). 학습공동체는 의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질적 학습자들의 내적인 차이생성이 각각의 방식으로 독특하게 발현되는 특이성의 공간이다. Hardt와 Negri(2000)는 다중(Multitude)과 공동체를 내놓으면서 삶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관계는 단일한 동일성으로 결코 환원될 수 없으며 다양성과 내적 차이를 나타내는 사회적 주체이다.

학습은 축적이 아닌 지속적인 해체와 재구성 과정이다. 인간은 삶의 궤적 속에서 총체적인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의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체적 공간을 만들어간다(이지혜, 2004). 따라서 학습자가 공간에서 경험하는 ‘- 되기’의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학습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질적 사례연구

이 연구는 평생학습 공간인 학습나루터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성인 여성 학습자 ‘- 되기’를 알아보기 위해 면대면 인터뷰를 기초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기초로 동네배움터 공간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 되기’를 경험하였고 그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학습공간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보자 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탐색하려는 관심사와 광범위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고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탐색에 적절한 연구방법이다(조홍식 외 2015, Creswell, 2013).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는 하나의 실례, 현상, 사회적 단위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체적인 묘사와 분석”이며 “지식의 한 분야를 발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Merriam, 1998). 질적 연구는 개인이 관계를 만들어가며 사회현상 경험을 추체험과 해석학 순환과정을 거쳐 맥락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평생학습 공간인 학습나루터 프로그램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¹⁾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중 7명을 연구참여

1) 연구자는 ‘2016 평생학습 리닝메이트 역량 강화 과정’의 강사 자격 이수 후 학습나루터 프

자로 정했다. 신뢰성과 타당도를 높이고자 8차시 프로그램 중 80% 출석을 원칙으로 의도적으로 선정하였고 눈덩이 표집을 병행하였다. 이러한 수집방법은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많은 정보를 주고 통찰과 대안적인 해석을 제공해줄 수 있다(김영천, 이현철, 2017). 연구자는 2017년과 2018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2019년 내 집 앞 카페 배움터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다양한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질적 연구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자의 편견(researcher bias)'과 관련이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 사례연구 경험자인 박사 1인과 프로그램 담당 주무관의 도움을 받아 삼각구도화(triangulation)를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 전사 과정에서 평생교육학 박사수로 연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프로그램에 대한 장·단점 관련 자료의 불충분한 부분은 해당 주무관에게 관련 자료를 확보해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2〉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

구분	연령	취미	지역	프로그램 참여횟수 ²⁾
연구참여자A	51	배드민턴	구리시	2회
연구참여자B	51	의상 만들기	광진구	6회
연구참여자C	41	캠핑	광진구	4회
연구참여자D	52	독서, 토론	광진구	8회
연구참여자E	72	수영	광진구	6회
연구참여자F	64	요리	광진구	10회
연구참여자G	39	독서, 봉사	광진구	3회

3. 자료수집

연구 자료로는 참여자인터뷰와 학습 활동자료를 활용했다. 인터뷰는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졌고 질문에 따라 단체 인터뷰를 병행해서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판단중지하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해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인터뷰는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뷰 장소는 대부분 강의장이나 카페로 정해 연구참여자에게 접근성이 좋으며 익숙한 공간으로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모두 녹취하였다. 중요 키워드는 인터뷰 흐름을 위해 메모하여 추가 질문으로 연결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확보했다. 인터뷰 시간은 대략 90분 정도였으며 인터뷰가 끝나고 내용에 대한 의미와 맥락을 잊지 않기 위해 그날그날 전사를 진행하였다.

로그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했다. 2017년 부모, 진로교육, 2018년에는 버추 프로젝트, 2019년 '내 집 앞 카페 배움터'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만난 100여 명은 모두 여성이다.

2) 2017년 10월 동네배움터가 문을 열고 지금까지 참석한 프로그램의 총 횟수를 말한다.

4. 자료분석 절차

모든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고 녹취한 전체 자료를 꼼꼼하게 전사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에서 메모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분석 자료에 활용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몸짓 언어 사용과 목소리 톤을 주의 깊게 관찰해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활동으로 김유정 문학관을 방문했다. 이때 인터뷰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암묵적 요소도 자료로 포함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 횟수가 거듭될수록 다른 학습자 의견이나 생각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는 이야기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많은 학습자와 배움의 열정이 높은 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터뷰를 추가하고 심층적인 질문을 병행하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설정하는 단계를 거쳐 자료 분석을 완료하였다.

<표 3> 자료수집 하위범주, 세부범주 도출

구분	하위구성요소	세부구성요소
프로그램 참여 계기	사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막한 서울살이 소통할 공간이 필요 • 새로운 정보를 못 쫓아가면 공룡처럼 멸종의 두려움
	공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지식 • 여러 세대와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세대 간 소통
학습이 제공한 '- 되기' 과정	개인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지나쳤던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봄 • 다양한 경험을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 • 마음의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점점 평정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맞서게 됨
	지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 다양한 학습자들의 경험사례 공유 •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학습과 토론이 가능 • 좋은 변화를 서로 열어주는 관계 형성
	사회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던 세상 열림 • 건전한 의식과 건강한 생활로 선한 영향력 • 내 생각과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

Ⅳ. 연구결과

1. 학습나루터에 한 걸음 내딛다

가. 삭막한 도시에 소통의 장이 열린다

과거 여성에게 배움은 자녀의 양육과 보육을 위한 축소된 삶만이 필요했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소통의 통로로는 도외시되었다. 교육 소외자인 여성은 사회에

서도 해안과 안목을 기르는 데 더디게 걸어왔다(이혜정, 2015). 평생학습이 학습할 권리를 되찾자는 학습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차별받은 교육 소외자인 여성에게 다양한 학습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동네배움터도 이의 일환이다.

요즘은 같은 동네 살면서도 이웃을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집 근처 가까운 곳에 생겨난 동네배움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안하게 가서 삭막한 서울살이 마음 열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참여자 B>

프로그램이 여기저기 많이 열리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집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것을 알아가는데 나만 모르면 왕따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못 쫓아가면 공룡처럼 멸종위기에 놓일 것 같기도 하고요 <참여자 A>

예전 우리 사회의 여성은 제한된 삶만을 요구받는 문화와 환경이었고 평생학습 경험은 전무 하였다(전희경, 2013). 동네배움터는 '뭔가 배워보고 싶는데 교육기관이 멀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 있으시죠? 이제는 집 근처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학습나루터 찾으세요'라는 홍보 아래 학습도시 형성에 힘쓰고 있다. 평생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장애가 없이 삶과 밀접한 생활공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나.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함을 발견하다

현재 과도기적인 환경에 놓여 있는 성인 여성은 평생학습도시 확대에 학습할 기회가 많아졌다. 학습은 학문계과 실천계라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으로 현장에서 완성해 간다(이희수, 2019). 학습자들은 삶의 경험으로 이론을 만나고 그 경험들은 이론을 통해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삶으로 생성해 간다.

일상생활에서 그냥 지나쳤던 것을 다시 돌아보는 수업시간이 좋았어요. 특히 동네 안에서 편안한 분위기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제공되었고 서로의 다른 경험들을 다양하게 나누며 폭넓은 삶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었어요. <참여자 C>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의미관점으로 인해 경험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발견된 나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의미관점이 변화해 간다(박경호, 2009). 경험이 모두 다 관점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억과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했을 때 반성하고 의문을 던지고 성찰 과정을 거치면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

다. 삶이 얹으로 연결되면서 다른 얹으로 나아가다

경험학습으로 잘 알려진 듀이는 참교육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강조했다(최현주, 2018). 경험은 처음에는 과거 배움으로부터 시작되며 현재의 활동과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해간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 개인의 삶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학습경험이 만들어가기도 한다. 학습은 서로를 인정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각각의 변화는 소통을 전제로 한 의식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Brookfield, 1983).

개인의 지식과 경험이 각자의 얹으로만 ‘고여 있지 않고’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프로그램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경험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배움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참여자G>

개인은 삶을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삶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현 과정을 가진다(최현주, 2018). 학습은 경험을 제공하고 경험은 세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면서 변화하고 성장을 해간다.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사회의 구현으로 다시 시작하는 학습을 통해 자기 내부에 생성된 ‘성찰적 균열’을 바탕으로 성찰 지점을 발굴해 나간다(안현용, 2013).

예전 같으면 중심을 못 잡고 힘들었던 일들이 요즘은 삶의 균형을 갖고 용기 있게 맞서고 있어요. 이렇게 된 계기를 생각해보니 책을 매개로 한 꾸준한 토론과 배움터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여가 많은 깨달음을 준거 같아요. <참여자D>

배움은 개인의 자아가 세계의 관계적 맥락을 인식을 돕고 자신의 삶에 지속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인문학적 가치와 사유를 자리 잡아가도록 돕는다(조한혜정, 2006).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처럼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삶을 지향한다. 개인은 태어나서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삶은 서로서로 경험을 나누면서 학습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존재 양식이다.

2. 동네배움터 공간에서의 불완전성 경험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 사이에는 본질적인 불협화음이 존재한다(한승희, 2019). 교육의 기회 확대로 인하여 성인들이 교육현장으로 유입되면서 교육자 중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의 필요가 강조되고 있다(백수

정, 이희수, 2012). 개인이 학습에 대한 요구 확인, 타인과 함께 참여하는 학습의 수준, 다양한 학습경험의 확보 역시 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다(최은수, 2010, Knowles, Holton, & Swanson, 2005). 동네배움터 공간은 삶과 학습을 잇는 학습장이 되기 위한 출발의 일환이다. 과거 교육은 학습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그 학습의 과정을 개입하는 활동이었다. 상호학습과 토론학습 경험이 거의 없었던 학습자들은 교수와 학습의 비대칭성은 불완전성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차시가 더해질수록 경험을 통한 상호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졌다. 평생학습의 주요 대상인 성인 학습자는 스스로 원하는 상황에 학습을 시작하면서 자발적 학습으로 자아실현을 돕는 학습으로 이어진다.

가. 개인과 학습의 연결점을 찾지 못하다

Senge(1990)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던 것들을 배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으로 능력을 확장해 나간다고 보았다(안중호, 1996).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수업 참여자들은 배우는 활동에서 성찰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상호학습, 토론학습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성인 여성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며 어려워했다. 이질적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맺음이 학습공간의 생성과 공동체의 안팎으로 흐르는 학습공동체를 유연하고 창조적인 공간으로 재조직을 가능하도록 한다(최근정, 최선주, 2019).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편하게 듣는 수업 방식이 익숙해서 그런지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서툴기도 하고 아무튼 쉽지 않았어요. <참여자 A>

다른 학습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과 사고를 비교해보기도 했어요. 가끔 나의 사고에 균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두 번으로 쉽게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참여자 C>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기획, 설계, 운영에 따라 또는 기획자의 의도, 강사의 역량 등으로 학습자의 요구에 여러 가지 간극이 있을 수 있다. 학습자의 현재 수준과 바람직한 수준 차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는 학습이 실천 가능한 토대를 제공한다(백수정, 이희수, 2012).

나. 교수와 학습의 비대칭성은 불완전성을 부른다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이 둘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학

습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영속성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에 엇박자를 불러온다. 교육은 학습에 개입하되 좀 더 겸손하게 학습자가 가능한 구역을 찾아야 한다(한승희, 2019). 교수자는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지식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수업이 시작 직전 장소변경이 공지된 날은 어김없이 학습공간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습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이런 날은 당연히 수업 집중도 떨어뜨렸지요. <참여자 C>

공간이 매우 큰 구조와 작은 구조로 분포되었다면 실천공동체 공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필수적인 불연속성을 어지럽게 하기도 한다. 위치성 확보를 통해 연결된 공간은 주체성을 지닌 학습자의 성장이자 공동체의 성장이며 또 다른 생성의 공간을 창조는 전환학습을 독려한다(최근정, 최선주, 2019).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부터 매 차시 별 수업과 활동을 공지해서 커리큘럼에 맞게 수업을 운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G>

인간의 학습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공간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 없는 불완전한 도구이다. 학습공간은 주민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이병준, 2017). 학습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실천공동체 일원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두고 완전한 구성원이나 중심적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측면을 부각시킨다(Wenger, 1998).

다. 지속학습으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평생학습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한 삶에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은 개인이고 결국 개인의 행복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동료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로 시작하여 함께 생각하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안중호, 1996, Senge, 1990). 학습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신뢰가 쌓이면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경험을 소재로 지속학습이 가능해졌다. 사람은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돕는다.

자꾸 공간이 바뀌고 어수선해져 한 번을 빠졌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했던 다른 학습자가 안부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수업에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웬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여하고 싶어졌어요. <참여자 E>

인문학·역사·문학관 기행 등,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운영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무언가에 감동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옮겨보려는 힘이 생기기도 해요. <참여자 F>

배움은 다양한 방식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상호작용으로 의미형성을 촉진하고 조력하면서 추동하기도 한다. 성인학습은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Brookfield, 1983). 성인학습은 경험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과 연결고리를 통해 합체와 해체를 반복하면서 배움을 이루어가는 활동이다.

백안에서 인왕산을 잇는 순성놀이에 참석해서 10km를 걸었어요. 걸으면서 예상하지 못한 앞으로 즐거웠어요. 알아가는 기쁨도 즐겁지만 새로운 앎이 생긴 후 세상을 보면 더 많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삶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앎'을 제공되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C>

교육은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 삶의 형식으로 존재한다. 교육은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에 결정된 재생산이 아닌 새로운 창조로 전혀 새로운 반응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학습자가 잘 배우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역동성이 생성되어야 한다(정민승, 2014). 학습은 앎이 또 다른 배움으로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이며 배운다는 것은 인공적이기보다는 자연적 행위에 더 가까운 활동이다.

다른 학습자의 경험을 들으며 내면을 좀 더 깊이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사고의 힘이 생겼어요. 다양한 사고의 틀은 잘 살아가도록 하는 균형 잡힌 사고, 즉 균형성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F>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자유 의지와 배움의 힘으로 학습이 지탱되는 풀뿌리 학습 공간을 제공하였고 누구나 학습이 가능한 개방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성은 평생교육이 추구해야 할 주요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허준, 윤창국, 2015). 평생학습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의 최대한 발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학습공간에서 지속적인 연대를 통한 학습사회 구현이다.

3. 지역주민 모두의 학교

배움이 소수의 사람만 가능했던 시기에는 공동체에서 배움은 대부분은 무형식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여성은 오랜 세월 제도교육에서 소외되었다(김미숙, 2006). Deleuze와 Guattari(1980)에 의하면 앞으로 여성은 어떠한 지점에서든 돌출해서 소용돌이 운동을 하며 열린 공간을 차지하려는 변화가 일 것이라고 언급했다(김재인, 2001). 평생학습은 여성이 생애 전반을 구조화된 개념적인 틀로 구성하는 학습자 중심 프로그램 조성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해졌다.

가.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열린다

우리는 지역에서 삶을 시작한다. 지역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으로 삶의 공간을 확장하고 그들은 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이다(윤여각, 2012). 동네배움터는 내 집 앞 가까이 있는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학습나루터에 참여게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참여자 B는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답했다. 공자는 논어에서 ‘화이부동’으로 다름의 가치가 이해되어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진정한 소통은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가 만나서 다양한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확장해가는 통로를 제공한다. 전환학습은 개인적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통의 연결점과 공동체형성에 있으며 관계를 통하여 학습자들은 감정적이고 위협적인 것을 해결하며 개방성과 신뢰를 돕는다(박경호, 2009).

연구참여자 D의 “고여 있는 물이 되지 않도록”과 참여자 A의 “나만 모르면 왕따 당할 것”은 학습이 삶에 자연스럽게 공기처럼 스며들어 삶의 확장을 돕기 위해서는 연계성을 갖춘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평생학습도시는 참여지역 규모만으로도 현장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고 평생교육의 불모지와 같던 지역에서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영상, 2010). 연구참여자 C의 “삶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한 삶”은 이론과 실천의 순환 고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론의 힘과 생명력의 척도는 실천계에서의 실용성과 유용성이다(이희수, 2019). 학습도시 형성의 일환인 학습나루터는 교육학적으로 볼 때 학습이 문화적으로 생성되는 ‘되기(becoming)’의 과정을 제공했다(Hodkinson, Biesta, & James, 2008).

나. 개인지향 학습이 공동체지향 학습운동으로 나아가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장소에서 평생학습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판이 커지면서 개인의 학습권은 증가했으나 제도권의 영향으로 시민운동의 힘은 약화되었

다(김신일, 2016). 개인지향 학습운동은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가 어렵다. 공동체지향 학습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와 의미를 만들어가며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에 달려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사놓고 읽지 않은 작은 습관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주위 사람들과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여럿이 함께’ 행하다 보니 의지가 강해지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참여자 A>

평생학습이 주민에게 나침반이 되려면 시·공간을 사람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은 개인에게 던지는 ‘왜’라는 질문 형식보다 둘 이상에게 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상호 교환적 형태로 주민들의 집합적 ‘학습 조직화’를 조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니고 종료 후에도 단독방도 만들고 강사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짧은 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점점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B>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이 발견했을 때 내가 점점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변화를 통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고 서로서로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받을 때 ‘더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D>

다. 학습은 배움의 연속이다

연구참여자 A는 “여럿이 함께” 하다 보니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연대하는 공동의 산물 즉,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함께 한다는 것은 완성된 것에서 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다 미완성된 부분이 만나 확장해가는 ‘- 되기’의 연속적 과정이다. 이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며 지속적인 학습에 이어 다시 학습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조진숙, 2019). 전환학습은 사고, 감정, 행위의 기본 전제들에 있어서 심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비판적 성찰과 이성적 담론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자신의 관점이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박경호, 2009). 진정한 배움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각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열린 태도로 나가는 개방적인 사유과정이다. 학습자와 공동체는 분절된 실체가 아니며 하나로 묶어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습공동체는 특이성을 지닌 공동의 존재들이 유연한 연결되는 유동적인 공간이다.

연구참여자 F는 배움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하였던

데 학습자는 단순히 누군가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발달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다(최현주, 2018). 배움은 공기처럼 삶의 존재 양식이며 실천 가능한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연구참여자 C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이 보여*”를 통해 학습은 ‘무엇을 알고 있다’ 보다 ‘알아가는’, 즉 ‘-되기’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은 변화를 포함하고 각각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끄는 힘의 원천이 된다(Brookfield, 1983). 참여자들은 학습이 삶에 존재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보면서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하는 것을 익히게 되었다. 영국 작가 William Somerset Maugham의 소설 ‘달과 6펜스’ 주인공인 고갱의 유명한 작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물음이다. Deleuze와 Guattari(1980)에 의하면 세계는 고정되고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되기’라는 개념을 동명사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살아나게 된다(김재인, 2001). 연구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한 계기가 무엇이고 학습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되기’ 관점으로 바라본 하위범주와 세부범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지금까지 평생교육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 여성이 학습나루터 프로그램을 통해 ‘-되기’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습자들은 학습나루터 참여계기를 삭막한 도시에 소통의 장으로 동네배움터를 찾았다. 상호학습, 토론학습 경험이 거의 없는 학습자들에게 수업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으며 교수와 학습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야기되었다. 하지만 차시가 진행될수록 수업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졌고 균형 잡힌 사고로 점점 더 변화해가는 ‘-되기’를 체험했다. 평생학습의 제도화는 제도권 밖 소외된 사람에게 배움의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동네배움터는 이들을 포함한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한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실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학습도시 형성의 일환인 학습나루터는 지역주민의 근처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네배움터는 학습자들에게 삭막한 도시에서 소통의 장을 제공하였다. 일상에서 발견된 소소한 얽은 관계를 확장하는 배움의 욕구를 불러왔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학습이 일어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삶의 양식이다. 학습자들은 인간의 삶의 양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구분하면서 배움은 존재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보았던 것들을 상호작용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학습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둘째, 토론학습의 경험이 거의 없었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웠으며 불분명한 학습공간 제공은 학습 욕구를 빼앗기도 하였다. 하지만 차시가 거듭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학습자 중심' 수업에 익숙해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경험의 공유는 또 다른 앞으로 이어졌다. 성인 여성의 삶의 전환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왜곡된 의미구조를 비판적 반성 과정을 거치면서 해체, 전환으로 자신의 사고를 확장해가는 자발적 참여 과정이다.

셋째, 학습의 자발적 참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도왔고 균형 잡힌 사고를 확장 시켰다. 삶의 균형성은 개인의 차이가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보는 안목을 키워주었고 차이생성을 도와 다른 삶으로 변화해가는 '- 되기'의 경험을 제공하였다. 학습자들은 학습공간에서 학습을 삶과 하나로 보면서 전 생애 걸쳐 배우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을 체득(體得)하고 있었다.

Hannah Arendt(1998)는 '인간의 조건'으로 노동, 작업, 행위를 제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이진우, 2017). 인간의 조건 세 가지 중 개별적 '행위'는 동등과 차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차이가 드러난 행위는 동일한 삶에서 유일한 존재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유일무이한 존재로 태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주체적 개체이다. 유일성은 오직 하나만 있는 고유성으로 개인의 자발적 욕구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성한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주인이 되고 삶에 적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하면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야 한다는 의미에 덧붙여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한 '아직도 나는 배우고 있다'라는 글귀를 되새겨 본다. 학습은 배우고 실천하고 실천하면서 배우는 성찰과 행위의 결합인 프락시스가 중요하다. 학문과 실천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 확장뿐만 아니라 세계의 변화하는 성찰적 실천가로서 평생학습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인간다운 생활의 지속성 확보와 민주국가발전의 생태적 안녕을 포함한 평생학습진흥의 학습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평생학습은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담아 다음으로 가는 학습의 장 즉,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 참여공간인 동네배움터가 불확실한 세상에 맞서서 행동하는 삶으로 가도록 돕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끝으로 학습나루터 공간은 정례화되지 못하고 가변적 장소이동으로 인해 '- 되기(becoming)'가

활발한 공간 조성방안과 지속가능한 학습프로그램 구축을 담지 못한 제안점을 밝히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춘근 (2015). 평생학습 거점공간으로서의 작은도서관. **한국디지털 도서관 포럼** 79, 15-36. 서울: 디지털도서관.
- 곽삼근 (2002). 생태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과정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8(2), 99-125.
- 고영상 (2010). 한국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반성: 사업에 대한 주요 영향요소의 비판적 분석. **Andragogy Today**, 13(4), 1-27.
- 김미숙 (2006).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노동정책: 1960-2000. **한국인구학**, 29(1), 133-156.
- 김신일 (2016). 2016 한국사회, 평생학습에 길을 묻다. **제1회 서울 평생학습대토론회자료집**, 9-13. 서울: 서울평생교육진흥원.
- 김영천, 이현철 (2017). **질적연구: 열다섯 가지 접근**. 아카데미프레스.
- 김종일 (2006).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고학**, 5(2), 57-69.
- 박경호 (2009). 전환학습이론: 고등교육기관에서 중년 여성학습자의 의미구조의 변화. **Andragogy Today**, 12(4), 31-60.
- 박응희, 신서영, 박창현 (2019). 공간의 실천에 대한 평생학습으로서의 도시재생 대학 실행 연구: 앙리 르페브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교육연구**, 14(3), 1-19.
- 반상진 (2020). 미래교육을 담는 학교공간 혁신. (p.4). 교육개발 (ED-2020-244 (ED)). 진천:한국교육개발원<https://www.kedi.re.kr/khome/main/journal/selectJournalForm.do>에서 2020. 3. 30 인출.
- 백수정, 이희수 (2012). 성인교육 퍼실리테이터 역량개발: 필요수준과 현재수준 간의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8(3), 59-85.
- 안현용 (2013). 고등교육 과정으로 '되돌아온' 성인여성학습자의 학습경험 분석 : 모성적 돌봄 경험과 근대적 학습경험의 상호 간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여각, 이희수, 양병찬 (2012). **지역사회교육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윤창국, 박상욱 (2012).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의 이론적 발전과 평생교육 연구에 주는 시사점. **평생교육학연구**, 18(3), 113-140.
- 이병준 (2017). 평생교육, 마을만들기를 통해 공간을 배우다: 공간담론과 교육담론의 연결고리 찾기. **성인계속교육연구**, 8(3), 1-18.
- 이병준 (2019). 창의적인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로의 길- 평생학습도시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성인계속교육연구**, 10(3), 1-21.
- 이지혜 (2004). 기혼여성의 학습생활 분석: 1960년대 출생 여성을 중심으로. **평생교**

육학연구, 10(2), 79-107.

이희수 (2009). 홀리스틱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평생교육적 의미. **홀리스틱융합교 연구**, 13(1), 37-59.

이희수 (2019). 한국평생교육에서의 학문계와 실천계의 프락시스. **2019년 한국평생교육학회, 제1회 학술포럼 자료집**, 1-13.

이희수, 김영경, 이소연, 박지영, 조운정 (2013). 해방 후 평생학습의 전개과정 분석: 신사회운동 관점에서. **한국평생교육**, 1(1), 1-43.

이희수, 조순옥 (2007). 「Learning to be」와 「Recurrent Education」에 대한 비교. **평생교육학연구**, 13(4), 203-230.

이혜정 (2015). 남녀공학 고등교육의 등장과 교육기회의 젠더 평등: '통합'으로서의 남녀공학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2, 201-234.

송두범, 임현정, 정선기 (2016). 마을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정: 대전광역시 석교동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4(4), 127-149.

전희경 (2013). 1960-80년대 젠더-나이체제와 여성 범주의 생산. **한국여성학**, 29(3), 41-79.

정민승 (2014). 교육자-학습자 위치전환에 대한 교육학적 해석: 학습자중심의 교육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0(3), 27-46.

조병옥, 최운실 (2019). 공유형 실천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공동학습 경험 사례연구. **교육컨설팅코칭연구**, 3(2), 65-93.

조애리, 김진옥 (2016).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와 전복성. **페미니즘연구**, 16(1), 265-284.

조진숙 (2019). '늦깎이' 박사과정 성인학습자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교육학연구**, 57(3), 205-232.

조한혜정 (2006).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37(1), 71-97.

최근정, 최선주 (2019). '역설적 공간'으로서의 학습공동체: 후기구조주의 공간 관점에서 학습공동체 재사유하기. **교육문화연구** 25(3), 5-28.

최현주 (2018). John Dewey 학습관에 따른 "학습사회"의 개념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3), 567-589.

한승희 (2019). **교육이 창조한 세계: 학습활동에서 교육체제로의 진화**. 파주: 교육과학사.

허준, 윤창국 (2015).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담론의 평생교육적 함의. **평생교육학회**, 21(20).

허효인, 김한별 (2015). 학습공간의 조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성 회복과정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18(4), 77-103.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0.3.30.) **평생학습도시실태조사** <http://www.nile.or.kr>에서 2020. 3. 30 인출.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0.3.30.). **동네배움터프로그램운영현황**. <http://smile.seoul.kr>에서 2020. 3. 30 인출.
- Arendt, H. (199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 역 (2017). **인간의 조건**. 과주: 한길사.
- Brookfield, S. D. (1983). *Adult learners, adults education, and the communi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외 공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renie 2*. paris: Minuit. 김재인 역 (2001).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 2**>. 서울: 새물결.
- Hilery, G. A. (1982). *A research odyssey: Developing and testing a community theory*.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Books.
- Hodkinson, P., Biesta, G., & James, D. (2008). Understanding learning culturally: Overcoming the dualism between social and individual views of learning. *Vocations and Learning*, 1(1), 27-47.
- Knowles, M. S., Holton, E. F., & Swanson, R. A. (2005). *The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6th edition)*, 최은수 역 (2010), **성인학습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Hardt , M., & Negri, A. (2000). *Empi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ge, P. M. (1990).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learning organization*. 안중호 (1996). **피터센계의 제5경영**. 서울: 세종서적.
- Wenger, E. C.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문 접수: 2020년 4월 1일

논문 심사: 2020년 6월 2일

게재 승인: 2020년 6월 22일

<ABSTRACT>

**A experiential meaning study of ‘becoming’
of adult female learners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Learning dock in the neighborhood learning Center**

Baek Jung Sook(Chungang University)

Lee Hee Su(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search of qualitative cases made an attempt to ascertain a process of a ‘-Becoming’ of adult woman learners by engaging in Learning Dock Program in the neighborhood learning center. The ‘-Becoming’ has brought a practical process of creating and changing a big difference itself, not in the line with the position by imitation. For data collec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adult female learner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Learning Dock program. As a research question to find out this, first, what kind of motivation has led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participate in the learning dock program? Second, what kind of imperfection has been experienced in the neighborhood learning center? Third, I set a goal of how the participants have practiced the ‘-Becoming’ through learning and what meaning of it they have. As a result of my study, I have found that learners happened to visit Learning Dock because they were eager to find a place of communication in this desolate city. However, in the beginning, they felt burdensome on the class method which consists of asking and answering one another in the neighborhood learning center and I encountered with incompleteness in sharing their personal thoughts. As session increased, learners got to feel more comfortable and interactive at the class. They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classes voluntarily after all. Self-directed participation in learning not only guided a process of becoming a better person, but also helped a healthy body and balanced thinking. In conclusion, this provided an experience of the ‘-Becoming’ to help create a difference and change into leading diverse lives. I believe the balance of our lives cultivates a perspective of which a gap of individual is not wrong but different.

★ **Key words:** Lifelong Learning Space, Learning Dock, Neighborhood Learning Center, Adult learner, Right for Learning, -Becoming